

대전환시대 공교육대혁명을 위하여

송주명

(경기도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)

1. 경기교육의 현주소

- 2010년대 초반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혁신교육은 이명박 정권의 특권교육에 시달리고 있던 대한민국 교육,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커다란 희망
-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보수교육 트렌드로의 역전: 특권교육, 서열교육, 입시교육의 부활-지방선거 구도의 반전 가능성
- 2014년부터 지금까지 경기교육은 '혁신교육'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, 그 의미를 이미 상실함.
- 경기교육은 소통이 부재하고, 관료주의가 만연. 교육현장 학교는 혁신과 발전의 좌표를 이미 상실해버림

2. 혁신교육의 초심으로, 그러나 혁신교육을 넘어서

- 2022년 경기교육이 다시 대한민국 교육과 대한민국 그 자체에 희망을 일구기 위해서 경기교육의 새로운 리더십과 철학적, 정책적 대변화가 요구됨
- 혁신교육의 초심(初心)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음. 1) 시대정신(時代精神) 2) 민주주의(民主主義) 3) 현장주의(現場主義)
 - 새로운 교육은 시대정신에 투철해야 하며, 그 교육에 대한 설계는 민주적으로 이루어져 하고, 새로운 교육정책이 학교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교육감은 학교현장과 소통하면서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함
- 그러나 2022년 새로운 경기교육의 방향은 '혁신교육'으로의 회귀는 아님.
 - 경기혁신교육은 현교육감의 잘못된 비민주적 정책으로 '혁신교육'의 이미지를 오염.
 - 전국적으로도 진보교육감들이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교육 이후의 진취적인 대안을 만들지 못함.
 - 2022년 오늘날의 시대는 2009년 혁신교육시기와 달리, 사회전반에 걸친 총체적 대전환의 시대임

3. 대전환시대, 학교의 전면적 변화: 대전환시대 공교육대혁명

○ 대전환시대의 교육의 핵심과제: 코로나19, 인공지능혁명, 기후위기, 사회적 불평등, 민주주의의 위기 등

■ 대단히 어려운 과제

■ 교육의 변화양상: ‘혁신교육’의 문제영역을 넘어선 ‘공교육대혁명’과 같은 거대한 교육변화

(1) 코로나19

○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학교의 중요성을 일깨워줌. 동시에 코로나는 아이들에게 ‘학교를 잃어버린 세대’가 되도록 함.

■ 아이들의 교육결손과 격차, 심화된 교육불평등, 사회적 결손 등 아이들에게 만들어진 결손을 총력을 기울여 해소해야 함.

○ 코로나는 감염병에 ‘안전한 학교’를 만들도록 강한 요구. 더 나아가 학령인구 감소를 ‘전화위복’의 기회로. 학급당 학생수 20명 기준이 아니라 15명 전후로!!

■ 안전한 학교 + 교육의 질 획기적 향상

(2) 인공지능혁명

○ 인공지능은 인간의 본질인 ‘지성’(생각하는 힘, 사고력)과 ‘노동’(일하는 힘)에 대한 본질적 도전. 그 기술적 진보의 속도가 대단히 빠름. 이는 인간의 영역에 대한 도전과 대체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을 의미

○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것. 교과서에 죽은 지식을 전달, 암기, 적용, 문제풀이 교육

■ 이러한 교육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이 큼(=에듀테크)

■ 이러한 교육으로 만들어진 (직업) 역량은 인공지능노동이 빠른 속도로 대신할 가능성이 큼(인공지능과 노동대체=직업의 소실)

○ 교육내용의 근본적인 ‘대혁명’이 필요함.

■ 인공지능시대 진정한 인간다움의 영역을 찾는 교육

■ 생각(사고력=비판적 사고=통찰력, 기획력, 추진력)을 키우는 공통교육. 진정한 인문학/보편적 교양의 교육시대.

고전명저 독서, 문화예술 감상과 창작, 과학적 실험과 경험, 사회적 실천과 노작에 기초한 비판적 사고, 토론교육

■ AI기술과 그 성과의 독점,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(Google, Apple, Facebook, Amazon, Microsoft 등 소위 GAFAM의 글로벌 독점, 한국의 경우 Naver와 Kakao의 독점. 이러한 독점은 정치적 권력도 독점 혹은 과두제화를 초래함)에 대한 진정한 시민적 대응역량

디지털 문해력(Digital Literacy)

AI 기술 성과의 홍익인간 활용 + 민주적 분배
민주주의를 옹호, 재구성할 수 있는 시민역량의 필요성

(3) 기후위기

- 기후위기와 2050년 탄소중립의 절실함.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변화, 우리 모두의 삶의 패턴의 근본적인 변화
- 2050년은 아이들의 시대. 아이들이 가장 전성기에 삶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.
- 아이들이 녹색전환의 삶을 살도록 + 미래 아이들의 생존을 위한 실천적 교육 절실함
 - 완전히 새로운 학교: '지속가능학교'(녹색학교)
 - 그린건물, 태양광발전, 텃밭 및 학교수풀(삼림)

(4) 사회적 불평등

- 1997년 IMF 이후 한국사회 불평등의 지속적 심화.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양극화.
- 학교와 사회적 불평등의 상처(직접적 불평등 + 교육역량, 즉 문화적 자산과 경험의 격차 등)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려면, 학교내부의 보다 정치한 불평등의 완화, 혹은 완충장치가 필요함.
 - 체계적 교육평등 프로그램 필요함
 -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: 무상급식, 등록금 무상화, 무상교복, 무상교육비용 등
 - 개별맞춤형 교육문화역량의 지원
- 사회적 불평등과 가정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
 - 돌봄과 방과후 학교의 안정화, 업그레이드
 - 방과후학교(돌봄포함)의 '교육' 프로그램 질적 강화, 다양화, 공공화
 - “아이를 키워주는 교육 그 이상의 학교”

(5) 민주주의의 위기

- 촛불혁명 이후 민주주의의 '기초조직'의 강화, 민주시민의 안정적 '형성' 조직의 구축 필요성
- 민주주의는 민주적 시민이라는 주체 없이는 불가능
- 시민의 민주적 삶의 공간이자 시민형성의 공간으로서의 학교
 - 시민형성: 지성, 정의, 실천, 연대 등의 덕목 체현
 - 정규교과 외 시민과목이 아니라, 정규교과 도입 및 교과전체의 교육목표로!!!
 - 교육내용/방향 + 학교의 삶
 - 학생회, 교사회, 학부모회, 교직원회 등 + 학운위 대표체계
 - “민주주의학교”

4. 노동존중 민주주의

- 공교육대혁명은 궁극적으로 노동존중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 기반이 강화된다.
- 학교 안의 총체적 교육역량의 협업과 협치
- 학교 교육노동, 공무직제 확립의 중요성/위상확립
 - 권리, 책무-법적 근거 (교육공무직제 모델)
 - 차별철폐, 중장기적 교육노동의 역할
- 노동존중 민주주의
 - '일하는 사람들'의 평등한 민주주의
 - 교직원 노동인권교육 + 학생 노동인권교육
- 교사와 교육(노동)자의 발전적 협업
 - 수업에서의 협력
 - 학교교육 생태적 협력

5. 협업과 협치를 통한 공교육대혁명: 자치분권교육공동체

- 혁신교육의 반성
 - 혁신학교: 개별학교접근의 한계, 양적 확대정책
 - 혁신교육지구: 정책목표의 불분명성, 거버넌스와 질적 관리체계의 불명료함
 - 창의지성교육도시: 화성, 벤치마킹의 포인트
- 선구적 모델
 - 자치분권: 기초자치체 차원의 독립적 교육브랜드
 - 명확한 역할분담: 예산 + 교육설계 + 소프트웨어
 - 진두지휘의 센터: 교육지원센터-연구개발, 프로그램, 컨설팅, 피드백
교육지원청의 역할변화-지원역할
- 교사만의 공교육대혁명은 불가능. 협업과 협치의 공교육대혁명 시대
 - 교사역량의 강화 지원
 - 협업: 교육전문가, 마을교육전문가, 교육노동의 교육참여
 - 학교와 마을의 협업, 융합
 -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치
- 새로운 교육모델로서 '자치분권교육공동체'
 - 인구 30~40만 단위: 학구 등 재조정, 자치분권의 기초단위
 - 고교학점제 활용-고교학점제 자치캠퍼스
 - 고교혁신 전제한 초중고 연계-지역 전체의 교육업그레이드

- 학교 연계공동체 + 방과후학교 + 지역아동센터 + 대안학교 + 마을학교
- 자치분권과 독립적 거버넌스
- 고교학점제 지역자치캠퍼스
 - 고등학교 7~8개를 연계 통합한 캠퍼스
 - 고등학교의 준특목고형 특화: A. 문학, 인문학 B. 사회과학 C. 문화예술 1 D. 문화예술 2 E. 수학과학 F. 외국어 G. 대안 실천교육
 - 각학교별 단계별 다양화 프로그램 제공: 보통, 심화, 전문
 - 지역내 학생의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의 구현
 - 캠퍼스내 공적 셔틀버스(Busing)
 - 교육센터 + 본부학교 + 공유학습장
 - 학교별 방과후학교 시스템
 - 기초학력센터, 문화예술센터, 사회적 실천노작센터, 전문교육센터: 마을교육, 대학 등
- 초중고 연계구조의 형성
 - 창의지성교육 과정의 구현
 - 생각키우기: 비판적 사고, 통찰력, 기획력, 추진력
 - 고전명저 독서, 문화예술 감상/활동, 과학적 실험과 체험, 사회적 실천과 노작 등의 텍스트 + 비판적 사고 + 토론
 - 민주주의학교
 - 보편적 교육복지의 획기적 확대(교재, 교구비용까지)
 - 기초학력 보장제
 - 맞춤형 문화예술교육
 - 서구형 고품격 공교육 프로그램 + 혁신학교의 성과
 - 진학시 특별프로그램
 - 교육센터의 기획설계 역할
 - 공공적 초등돌봄, 방과후학교의 확대
- 마을교육자원의 적극적 역할
 - 광역차원의 전문성제고 기관
 - (작은) 도서관 네트워크
 - (온라인 등) 지역 문화예술센터
 - 지역 체험활동센터
 - 자원봉사센터
 - 지역 시민/노동인권센터
 - 마을교육센터
 - 지역아동센터
 - 지역 대안학교